

사도행전 21~28장 (20-30분)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세 번째 선교 여행에 관한 기사는 사도행전 21장 16 절에서 끝난다. 약 10년간의 세 번째 선교 여행 동안, 바울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였으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사도행전 9:15)서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간증하였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3장 35절까지는 이 선교 사업의 마지막과 가이사랴에서 로마인 통치자인 벨릭스 앞에 그가 나아갔던 일 사이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선교사 바울의 담대함과 어떤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도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하는 그의 능력에 주목해 본다.

반원들에게 세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경기에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선수가 될 때까지 수년간의 연습, 코칭, 다시 배우기, 체력 강화 훈련, 경쟁 및 향상을 통해 경기의 기초를 배우는 것 등 그들의 단계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 토론한다.

- 선교사는 어떻게 최고 단계에 이른 운동 선수와 같은가? (국가대표, 준비, 훈련, 경쟁, 성과, 열매, 비교),
- 선교사 훈련에 어떠한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한가? (영적,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 각 단계의 발전 필요) (교성4:6)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애, 겸손, 근면을 기억하라." (교성11:21)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런 후에 내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

바울이 짧은 시간에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의 사도이자 선교사가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주님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준비시키셨다.

- (행9:6) 주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씀하셨는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 (행9:15~16) 주님은 그의 성역에 사울을 부른 목적에 대해 아나니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 적는다.

1. 바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행18:3 참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2. 바울은 어떠한 언어를 말할 수 있었는가? (행 21:37~40 참조)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기를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3.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행21:39 참조)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현재, 터키의 남부 도시이며, 지중해로부터 약 19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다. 바울당시에는 50만명정도가 거주하던 큰 항구 도시였다. 현재 인구는 8만 명
4. 바울의 선생은 누구였는가? (행22:3 참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저명한 유대인 랍비, 사도들이 잡혔을 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고 말한 바리새인 율법교사, (행5:33-42 참조)

5. 바울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가? (행22:25~29 참조)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나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군인들은 복무를 마치면 로마시민권을 받았음, 바울의 부친도 로마시민이었음, 커다란 특권,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 없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감옥의 당국자들이 당황해 하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행 16:35-39)
6. 바울이 받았던 종교적인 훈련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6:4~5 참조)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반원들에게 답을 찾아보게 하고, 그것을 칠판에 쓴다. 그런 다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바울이 사도와 선교사가 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토론한다.

- 1) 직업(재정적 준비), 2) 언어(영어, 국어), 3, 5) 한국인, 4) 스승(부모, 교사, 지도자), 6) 엄한 생활(절제, 자기관리)

우리도 또한 교회의 부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음 질문들을 한다.

-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도록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부모 및 지도자의 권고, 명상)
-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준비하는 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부모, 교사, 지도자, 하나님, 성신의 인도)
-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준비 사항이 똑같은가? (신체적, 세미나리 이수)
- 학교 교육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설득력, 대화의 기술, 국어)
- 우리는 교회의 부름에 완전하게 준비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지런함, 영으로 충만, 게으름, 믿음 없음)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다음의 말씀을 읽고 토론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대해 우리에게 물어봄으로써 시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증명하는 경우,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증대시켜 주실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중요한 것은 봉사이지, 지위가 아닙니다", Ensign, 1975년 7월호, 7쪽)

2009년 9월 7일, 수원 스테이크 신갈와드 세미나리 교사, 구승훈 형제

사도행전 21:1-17 (25-30분)

성신의 인도를 받았던 경험에 대해 함께 나눈다. 반원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에 대해 함께 나누게 한다. (그들에게 너무 신성하거나 개인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영의 속삭임을 따르는 것이 때때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반원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2~25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라는 영의 지시에 따른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가? (결박, 환난, 죽음)

반원들에게 만일 그들이 한번 가면 다시는 가족이나 친구들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그와 같은 부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 친구, 희생할 것이 많음)
-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받게 되는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제안 받음,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함)
- 그러한 것은 바울이 직면했던 상황과 어떻게 비슷한가?
- 사도행전 20장 36~38절을 읽는다. 바울은 자신의 부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반원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17절을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토론한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집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 바울의 친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결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4, 10~12절 참조) (만류, 강권)
- 왜 친구들은 때때로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느끼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가? (사랑, 미래 예견)
-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 바울은 그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3절 참조) (죽기를 각오함)
- 그것은 바울의 간증에 대해 어떠한 것을 보여 주는가? (강한 간증, 하나님에 대한 신뢰)
-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
- 바울의 결심에 대해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14절 참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 여러분은 진리의 편에 섰던 어떤 친구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도록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는가? (그와 같은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반원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반원들에게 18세기 영국의 성직자인 윌리엄 로의 다음 말씀을 읽어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선택한 어떠한 것에서도 결국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가장 작은 부분 [1973년], 1쪽)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사도행전 21:16~26.

새로운 개종자들이 복음을 배울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 인내심과 이해심이 필요하다.(20~25분)
반원들에게 세계 지도를 보여 주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토론한다.

- 세계의 다른 여러 지역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가? (특정한 한두 나라들을 가리킨다.)
-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는가? (가장 최근의 리아호나 5 월호의 연례 통계 보고서를 참조한다.)
- 이 새로운 개종자들 중 일부의 종교적인 배경은 어떠한가? 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 교회에 가입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새로운 개종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필요가 있는 개념, 교리, 믿음, 예배 방법 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 교회의 어떠한 가르침과 예배 방법이 새로운 회원들이 적응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반원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6~20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 바울은 어디로 선교 여행을 갔는가?
-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유대인 회원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21~26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 개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 그들의 의견은 오늘날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의 의견과 어떻게 비슷한가?
- 우리는 바울의 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 반원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한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여러 경우에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관대하거나 그것을 존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권리에 대해 관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표현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의 바른 태도를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서도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며, 앙심을 품지 않고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 우리의 삶에 더 큰 그리스도의 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들이 무엇을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666~667쪽)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드는가?

반원들에게 그들의 와드, 스테이크, 또는 학교에서 최근에 교회에 가입했거나 활동화 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내심과 사랑을 보여 줄 수 있는가?

대답들을 칠판에 열거하고, 새로운 개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던 바울의 모범을 따르도록 반원들을 격려한다.

2009년 9월 9일, 수원 스테이크 신갈와드 세미나리 교사, 구승훈 형제

행21:27-22:23 (바울의 전도), 22:24-23:10 (큰 분란) 부분의 표준 새번역 성경을 읽는다.

사도행전 23:11~31. 때때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를 위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신다.(20~25분)

반원들에게 그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는 반원이라고 가정해 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내가 좋은 성적을 얻도록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대답에는 부모, 교사, 가정 교사, 친구들이 포함될 수 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도록 하신 일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반원들에게 **사도행전 23장 11~31절**을 돌아가면서 읽게 한다.

그들이 읽을 때, 다음 질문들을 토론하기 위해 잠시 멈춘다.

• 주님께서 바울이 행하도록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11절 참조)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 바울은 어떠한 음모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었는가? (12~15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땅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 바울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도왔는가? (16~18, 23절 참조)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삼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조카와 천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데 다른 사람들이 때때로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반원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여러분은 다음 질문들을 사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봉사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활용하시기 까지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할 때, 주님은 교사에게 속삭여서 공과 시간에 그 원리를 가르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일에 대한 경험담을 발표하도록 권유한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도록 여러분을 활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도움을 드릴 준비를 하라고 격려한다.

사도행전 24:10~21; 25:8~11; 26:2~9. 진리에 대한 간증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경전, 그리고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해 간증해야 한다.

• 여러분이 어떤 나라의 지도자와 20분 동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반원들과 함께 **사도행전 26장 12~18절**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사 부름" 부분을 함께 읽는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 바울이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그것과 어떻게 같았는가?

반원들과 함께 **사도행전 24장 10~21절, 25장 8~11절, 26장 2~9절**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답해 본다.

•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부활)

•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변론, 토론, 항소)

• 바울은 누구에게 가르쳤는가? (벨릭스 및 베스도 총독, 아그립바 왕)

• 바울은 언제 가르쳤는가?

• 복음을 가르치는 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반원들에게 질문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하는 바울의 담대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원들의 대답에 대해 토론한다.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간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베드로전서 3:15)고 가르쳤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Conference Report, 1990년 10월, 38쪽. 또는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35쪽)

반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준비하도록 격려한다.

2009년 9월 10일, 수원ST 신갈W 세미나리 교사, 구승훈 형제

바울이 체포되다 (표준새번역, 사도행전21-27-36)

그 이레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들어 놓고, 소리 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 곳을 적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기를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의 폭행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메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 버려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다 (행21:37-22:5)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사천 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한 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중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서,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개심 이야기 (행 9:1-19; 26:12-18)

바울을 이방 사람의 사도로 보내시다 (행22:17-23)

"그 뒤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아지경에 빠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증언자인 스테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저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 버려라. 살려 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임을 알리다 (행22:24-29)

그 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오?"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바울이 의회 앞에서 해명하다 (행22:30-23:10)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 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치실 것이오. 그대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일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일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소리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군인에게 명령하였다.

사도행전 27장. 선지자의 경고를 명심함으로써 우리는 보호받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20~25분)

수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읽어준다. (다리 이야기)

반원들에게 바울은 그 다리 위에 있었던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고 말해 준다. 그들에게 사도행전 27장 9~26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백부장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 배의 승객들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난파 ...)
-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임 ...)

반원들에게 27~44절을 읽음으로써 이야기를 끝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바울은 선지자로서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었는가?
 - 이것은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무너진 다리”에 대해서나, 또는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원들과 함께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최근에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한 것은 무엇인가? (비축 ...)
 -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고난, 고통 ...)
 -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명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화평 ...)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인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저는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이 형제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분들은 끊어진 다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Conference Report, 1993년 10월, 21쪽; 또는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17쪽)

반원들에게 살아 있는 선지자에 대해 이와 똑같은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권고를 주의 깊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도록 격려한다.

사도행전 27:13~28:10. 용기를 가지고 시련을 견디어 뱀으로써 우리의 성품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25~30분)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대답에는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원들과 함께 사도행전 27장 13~15절을 읽은 다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어떻게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 또는 “풍파”에 비유될 수 있는가? (순풍, 광풍, 밀림, 가는 대로 감)

반원들과 함께 사도행전 27장 16~44절을 읽은 다음, 이러한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한 바울의 성품들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용기(21~24절), 희망(22, 25절), 하나님에 대한 신앙(30~31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양식(33~36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성품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공과반에 아령을 하나 가져온 다음, 한 반원에게 그것을 들어 올리게 하거나 (그것을 허리에서 어깨까지 들어올린다.) 또는 한

반원에게 팔 굽혀 펴기를 하게 한다. 근육은 저항을 이겨낼 때 강해지고 가꾸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성품과 영적인 성장은 근육의 성장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자랄 수 있음, 강해짐, 연습, 훈련 ...)
-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 짐, 담대해 짐 ...)

칠판에 고린도후서 1장 3~4절, 4장 8~9, 17절,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적는다. 반원들에게 성구를 읽어보게 하고, 다음 질문들에 답해보게 한다.

(고후1:3-4)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후4:8-9, 17)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자신의 인생의 시련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신앙 ...)
-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내, 긍정적 태도 ...)
- 인생의 시련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강화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낙담, 좌절 ...)
- 인생의 시련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떻게 적절한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주님께 의지함 ...)

한 반원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한다.

“주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발전은 여러분이 처음에는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간에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성장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기꺼이 허용할 때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기꺼이 주님의 뜻에 중심을 두도록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영의 인도를 간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에서 가장 큰 행복과 이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해 가장 만족할 만한 성취를 보장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거나, 즐겁지 않은 모든 시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Conference Report, 1996년 4월, 33쪽;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25쪽)

반원들에게 사도행전 28장 1~10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구절에서 바울이 보여 주었던 영적인 힘과 성품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게 하였는가? (안도감, 과격함 판단 자제, 병고침, 후한 대접, 식량 조달)
-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데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신앙 ...)

2009년 9월 11일, 수원ST 신갈W 세미나리 교사, 구승훈 형제

“1975년 1월의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태즈 메이니아에서 7,000톤급 바지선이 동쪽 만을 가로 질러 호바트와 태즈메이니아를 연결하는 타스만 다리 교각 돌을 들이받아 다리 세 칸이 부서졌습니다. 그 때 링이라는 성을 가진 한 오스트레일리아인 가족이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 가로등 불이 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차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쳐 가던 차가 그들 바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머레이 링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자, 차가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끊어진 곳에서부터 1미터도 채 못되는 곳에서 가까스로 멈추어 섰습니다.’(스티브 존슨, “끊어진 다리 위에서”, 영문 리더스 다이제스트, 1977년 11월호, 128쪽)”

“머레이는 가족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사고 현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차들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려움 속에서 마치 미친 듯이 두 팔을 휘둘러대는 데도 차 한 대가 그를 피해 지나가서는 물 속으로 빠져 버렸습니다.’(128쪽) 두 번째 차는 가까스로 멈추어 섰지만, 세 번째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더니 다리 가장 자리에 있던 링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사람을 가득 실은 버스가 경고를 무시한 채로 머레이씨 쪽으로 달려 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사가 있는 창문 쪽을 따라 뛰어가면서, “다리가 끊어졌소!”라고 힘껏 외쳤습니다.’(129쪽) 버스가 방향을 틀며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채로 가까스로 멈추어 섰습니다. 수십 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스펜서 제이 콘디, Conference Report, 1993년 10월, 21쪽; 또는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17쪽)

(사도행전 28장 1~10)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